

지역 소식통

정읍시, 저소득층 가구 내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정읍시는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저소득층 가구의 취학과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사전신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를 위한 것으로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청년이다.

신청은 청년의 부모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에 '복지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민방위 사이버 보충교육

부안군은 2020년 민방위 사이버 보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총 2022명의 대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영향으로 이수율이 70%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아직 교육 미이수한 6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보충교육을 실시 중이다.

보충교육은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24시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이 가능하다.

교육방법은 부안군청 홈페이지에 있는 링크 버튼을 클릭하거나 스마트폰민방위교육 홈페이지(www.adc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하고 약 1시간의 수강 후 평가를 거치면 수료가 가능하다.

/부안=김석진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

정읍시, 민간감시단 합동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이달부터 4개월간... 고의·상습적 위법행위 행정처분 등

정읍시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대비해 미세먼지 핵심 현장(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간감시단과 합동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건설공사장과 불법소각 등 생활 주변 미세먼지 다량 배출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감시해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차로 민원 다량 발생지역을 순찰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 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과 전년도 위반사업장의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고의적 상습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민간감시단 운영으로 미세먼지 배출업소 등에 대한 홍보와 미세먼지

사전예방 조치, 자율점검 등을 유도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읍시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대비해 미세먼지 핵심 현장(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

고창군 '사랑의 온도탑' 우뚝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시작

올해도 고창군 공용 터미널 앞 회전교차로 교보상에 사랑의 온도탑이 우뚝 섰다.

고창군은 지난 1일부터 '희망2021나눔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라는 주제로 82일간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올해 코로나19 확산 등 경기 침체를 고려해 캠페인 기간을 단축(2020년 12월 1일~2021년 1월 31일)했다. 목표액도 지난해와 같은 3억원의 일반성금 모금으로 설정했다.

또 사회적거리두기를 엄격히 지키는 의미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으로 시작하는 캠페인 출범식은 취소했다. 대신 군수실에서 이웃돕기 유공자 표창과 희망2021 캠페인 1호 성금품 전달식이 진행됐다.

꾸준한 나눔과 기부로 군민들의 귀감이 된 (주)인플라스(대표 김영진)와 (유)금호산업(대표 임정례)에서 나눔 유공 표창을 받았다.

또 개인, 단체, 시설, 기업을 대표하는 1호기부자로 남프만 고창점의 박재열씨가 겨울이불 100채(1000만원 상당)를 사단법인한두레장애인자립생활협회(회장 정중구)에서 120만원, 한마음지역아동센터(센터장 이태은)와 씨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대기질 개선과 깨끗한 환경을 지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및 생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오염 신고 창구(신고번호 128)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미트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영자)에서 아이들과 플라마켓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금 157만800원을 (유)엘링컨설링에서 500만원을 기부해 사랑의 온도를 높였다.

나눔 캠페인 참여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전용계좌, 각 언론사의 사랑의 계좌, 또는 고창군청 및 각 읍면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현금 및 현물기부를 할 수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운 상황이지만 따뜻한 나눔으로 희망을 전파하기 위해 사랑의 온도탑을 다시 세운다"며 "추위지는 날씨가 만만치 않으니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게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 설계단 가동

정읍시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내년도 지역개발사업의 조기 발주와 신속 집행을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 설계단'을 운영한다.

자체 합동 설계단은 건설과장을 총괄 단장으로 시설(토목)과 공무원 4명만 15명으로 구성됐다.

설계단은 내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비롯해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총 250여 건 37억원 규모에 대한 자체 실시설계를 맡게 된다.

한발 앞선 합동 설계단 운영을 통한 재정 신속 집행을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시는 12월 말까지 대상 사업에 대해 현지 조사와 측량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월 중 일제히 공사에 발주·착공해 21년 상반기 안에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약 3억원의 용역비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시설직 공무원 선배 간의 설계기술 전수와 업무능력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설계단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물론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과 발주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 마실영화관, 이달 말 재개관

뱅크수탁자로 최종 선정

부안군 마실영화관이 오랜 휴식을 끝내고 올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다시 문을 연다.

군은 코로나19로 휴관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해 운영이 중단됐던 마실영화관을 주식회사 뱅크수탁자 관리를 맡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실영화관은 2014년 작은영화관 설립사업으로 개관해 매년 이용객이 증가해 작년에는 7만 7000여명이 찾는 행복충진소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임시휴관한 위탁업체(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가 운영권을 견디지 못하고 위·수탁 계약을 포기하면서 장기간 문을 닫고 있었다.

군은 영화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10월 마실영화관 운영 수탁자간 모집공고를 내고 민간위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거쳐 주식회사 뱅크수탁자로 최종 선정해 민간위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뱅크는 보령 광명 등에서 CGV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도내에서는 장수군 한누리 전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마실영화관을 오는 2025년 11월까지 운영하게 된다.

특히 영화관 운영인력은 부안군민을 우선 채용하고 관람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영화(2D) 6000원, 입체영화(3D) 8000원으로 책정했다.

또 수도권에서 개봉하는 영화를 등



부안군 마실영화관이 올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다시 문을 연다.

시 개봉하고 대형 영화관을 운영한 경험을 살려 군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의 문화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과 뱅크는 이번 재개관에 군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감사한 'Thanks To' 오픈 이벤트도 기획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의 휴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개관을 기다려준 군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재개관 후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켜 청정부안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아끼지 말자"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농기센터,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우수'

교육·경영분야 실적 인정

고창군농업기술센터가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이 주관한 '2020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교육·경영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도 종합평가에서 농업인교육과 경영분야의 실적을 인정받아 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추가로 관련 사업비 4,000만원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도 종합평가회는 매년 5개 분야를 평가해 분야별 우수 시군 6개소를 선발해 연말에 시상해 오고 있다.

고창군은 ▲농촌개발대학 운영(5개 과정 252명)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전문기술교육(14개과정 5889명) ▲농업인학습단체 육성(4개단체 2984명)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90개회 4224명) ▲강소농 육성(2개과정 704명) ▲e-비즈니스 및 경영마케팅 자격과정 운영(19회 609명) 등 교육 및 경영분

에서 우수한 실적을 쌓으며 이번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특히, 고창군은 특화작목인 수박과 복분자에 이어 멜론 명품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도매시장에서 전국 최고가(9만5000원/박스)를 기록하는 등 전국 최고품질의 멜론으로 성장시켰다.

이는 고창군농업기술센터의 체계적인 재배 기술교육과 컨설팅 경영마케팅 등 생산에서 출하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분석이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차별화 마케팅을 통해 농업인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품목별 농업인 전문기술, 마케팅 교육 강화와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등을 펼쳐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 적극 대응하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